

“그림은 스스로 다가와 주지 않아...여러분이 다가가면 많은 감동 줘”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연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씨

고흐는 살아생전 그림 단 한점만 팔았던 가난했던 화가
화가생활 9년간 2000점 그려...지금은 가장 사랑받아

고단한 노동자 가족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감자 먹는 사람들', 살아 꿈틀거리는 필치의 '해바라기',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까지.

스크린으로 작품 하나하나가 펼쳐질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응시하며 감동에 젖어 들었다.

빈센트 반 고흐(1853~1890). 서른 일곱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살아생전 단 한점만을 팔았던 가난했던 화가. 평생 자신의 가치를 한번도 인정받지 못하며 절망에 빠졌던 화가.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광주일보가 주최한 '리더스 아카데미' 강의가 지난 16일 라마다플라다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의는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아트스토리 105 대표)씨가 들려주는 '빈센트 반 고흐 이야기'였다.

이 씨는 그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고흐의 이야기와 그의 작품들을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살아있는 강의로 진행, 깊은 인상을 남겼다. 대학에서 로마사를 전공한 이 씨는 10여 년간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과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미술관 등에서 도슨트와 가이드로 활동하다

지난해 귀국, 미술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고흐, 모네, 벨라스케스에 대한 강의도 열고 있다.

이 씨는 "사람들이 흔히 미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림은 결코 여러분에게 스스로 다가와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다가가려고 하면 더 많은 감동을 전해준다"는 말을 시작으로 고흐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저는 고흐가 천재라기 보다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화가로 살았던 기간은 단 9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유향 860점과 수채화 1100여 점 등 무려 2000점을 그렸어요. 그 누구보다 성공을 갈망했지만 단 한번도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죠."

이 씨는 풍부한 작품과 사진 자료, 전문 지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거리의 여자였지만 고흐의 단 한번뿐인 사랑이었던 시엔, 형 고흐를 너무도 사랑했던 테오, 고흐를 끝까지 응원했던 테오의 아내 요한나, 프랑스 고속철 TGV의 엔진을 설계하고 고흐의 작품 전체를 기증한 조카 고흐 등을 둘러싼 다채로운 인물들의 이야기가

호기심을 자아냈다. 또 고갱과의 다툼 뒤 끝에 귀를 잘라버린 사건, 생 레미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을 당시 창살 밖으로 비친 풍경을 보고 그린 '문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작품에 얽힌 뒷 이야기들도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그의 평생 후원자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던 동생 테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다. 자신의 아들 이름을 '빈센트 반 고흐'라고 지을 정도로 형을 사랑했던 테오가 '거짓말처럼' 6개월만에 고흐를 따라 죽고, 오베르에 나란히 묻힌 이야기는 몽클뤼트.

"스물 여덟에 화가의 삶을 시작한 그는 정규 미술 교육도 받지 않았고, 스승도 없었고, 모든 걸 혼자서 이뤄낸 사람입니다. 전도사 시절 탄광촌 사람들을 위해 일했던 것처럼 항상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놓지 않은 인간이기도 했구요. 고흐가 죽기 전 50여 일 동안 오베르에서 제작한 작품은 96여 점에 달합니다.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동생 테오 부부, 그리고 사랑스러운 조카에게 짐이 되는 걸 너무 힘들어해 자살을 결심한 듯 해요. 죽음을 마음에 품고 쓴아냈던 작품들은 그래서 더욱 감동적입니다. 결국 권총 자살을 시도하고 이를 후생을 마감합니다."

강의에서는 고흐 자신이 인생 최고 걸작이라 부른 '꽃이 핀 복숭아 나무' 시리즈 중 7번째 작품, 그가 생전에 팔았던 단 하나의 작품인 '붉은 포도밭' 등 다양한 작품도 만날 수 있었다.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 아트스토리 105 대표가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다 광주호텔에서 열린 6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강연에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고흐는 테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래도 시간이 흐른다면 단 한 명쯤 내 그림을 바라봐주고,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카페에서 나와 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떤 날을 생각한다고. 아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흐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이 씨는 고흐와 관련한 가장 많은 작품

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암스테르담의 빈센트 반 고흐 뮤지엄과 함께 고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네덜란드 아르헨의 '크롤러 필러 미술관'을 추천했다.

이 씨가 보여준 한편의 짧은 영상은 감동적이었다. 미국 드라마 '닥터 후'의 한 부분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의 오르세 미술관 87번방을 찾은 고흐는 수많은 관람객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며 감상하는 장면, 역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였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이 씨가 들려준 마지막 노래 돈 맥클린의 '빈센트'까지 고흐라는 한 남자의 삶을 오롯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다음주 리더스 아카데미는 무등산 자락 시에테 벨리에서 열리는 가을 음악회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주옥같은 넘버 등 아름다운 음악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선대 양승화 '한국 생물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원)는 생명화학공학과 대학원생 양승화(사진) 씨가 '2018 한국생물공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최근 열린 '2018 한국생물공학회(회장 조선대 김시욱 교수) 추계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움'에서 국내산 대나무와 관련한 논문으로 포스터 발표 부문 학생 우수 논문발표상을 받았다.

양씨는 올해 조선대 대학원에서 '국내산 왕대와 습대에서 추출된 리그닌의 구조분



석과 항산화활성'이라는 논문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2학기)에 입학해 '대나무 유래 리그닌의 추출과 단량체 제조 및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SCI논문 1편, 학진등재 논문 3편을 비롯하여 국내외 학회 발표 4편 등을 발표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무안 구로마을서 1사1촌 자매결연 봉사활동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노사대표 30여명은 지난 16일 무안군 청계면 구로마을에서 노사공동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진)

공사는 구로마을 대표 특산품인 김양식철을 맞아 김발이식 등의 작업에 손을 보며며 어촌마을의 인력난 해소에 앞장섰다.

공사는 농어촌사랑 실천 및 도·농 교

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무안 구로마을,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적극적인 자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 김성호 사장은 "농번기 일손돕기, 자매마을 특산품 사주기 등 지속적인 1사1촌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활발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송원초 'Odyssey of the mind 창의력 대회' 개최

창의수업 통해 학급 대표선발

광주송원초등학교는 최근 '2018 Odyssey of the mind 광주송원 창의력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창의수업을 통해 각 학급에서 대표로 선발된 7명이 축제 형태로 실력을 뽐냈다.

'2018 Odyssey of the mind'는 세계 최고의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로 NASA(미국 항공우주국)의 후원으로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다.

송원초는 이 대회에서 이뤄지는 문제 유형 중 하나인 '현장 즉석과제(Spontaneous Problem)'로 자체적인 창의력 대회를 진행했다. 세계 창의력 올림피아드와 같은 방식과 국제심판의 평가 아래 즐겁고, 유쾌한 창의력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다.

광주송원초 신명순 교장은 "미래사회 핵심 역량인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창의수업이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이인우(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신애란씨 딸 하연양, 서진영·김희경씨 아들 인호군 피로연=26일(금)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아트웨딩컨벤션센터 4층 062-369-5200.

동창회

▲2018 대촌중학교 총동문(회장 남순복) 체육대회 및 회장 이·취임식=21일(일) 오전 8시 모교 운동장 010-3610-4706.

▲조대부고총동창회(회장 노동일) 2018 가족 어울림 한마당=21일 오전 9시 30분 모교 운동장 062-224-1461.

▲조선대 총동창회 2018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24일(수) 오후 6시 30분 광주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062-228-0197-8.

▲2018년도 승의 총동창 가족 한마당(회장 최은모)=20일(토) 모교 실내 체육관.

▲2018광고인 한마당(회장 이재숙)=21일 오전 9시 모교 운동장, 총동문회사무

실 062-234-9300.

▲장흥 용산초등학교 제51회 동창회=20일 오후~21일 오전 장흥군 용산면 체험학교 더꿈(옛 용산남교) 010-2363-0124.

▲제43차 동맥인 한마음 큰잔치=21일 오전 9시 30분 광주공업고등학교 운동장(31회 동창회 주관) 062-511-1946.

알림

▲제21회 재광해남군향우회 가족한마당 축제=28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회장 임일도 010-8601-5757).

▲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연구센터 '공간으로 읽는 남도학' 무료 강좌=11월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연구원 8층 상상마루 061-931-9436.

▲일기장영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을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인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모집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분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

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푸른길동문문화마을 회원=푸른길지킴이 활동을 함께하실 분은 누구나 지원 가능(상시모집) (사)우리문화예술원 062-523-0474.

▲설현치문화연구원=녹차, 중국차, 홍차 등 초·중·고급반 수강생 모집 062-432-0070, 010-2602-0070.

부음

▲정공진(전 광주일보 이사, 광주컨트리클럽 사장)씨 별세, 남호(J&J음악학원)·남용(대구교육대학교)·유하(합평 나산 실용예술중학교)씨 부친상, 객소희씨 시부상, 발인 18일(목) 오전 11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정용호씨 별세, 지섭·연섭씨 부친상, 임수연·임은숙씨 시부상, 발인 19일(금) 오전 8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 3분향소 062-231-8903.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본관 2층 7호 故송계봉 님(남/90세) 子 : 송만호 女/婿 : 송갑숙/심원식, 인숙/김선구, 경애/유연운, 경희/김문관 ◇입관: 10/17일 11:00 ◇발인: 10/18일 08:30 ◇장지: 고흥군동강연선영(매) ◇연락처: 250-4407	본관 2층 9호 故정영남 님(여/86세) 子/子婦 : 이석주/김경순, 석진/임정미 女/婿 : 이애지/김용백, 애숙/정일산 애남/김동섭 ◇입관: 10/18일 11:00 ◇발인: 10/19일 08:00 ◇장지: 영락공원(화) ◇연락처: 250-4409
본관 3층 10호 故양영심 님(여/82세)	
子 : 최정진/이화란, 병용/김귀례, 병석, 우용/정여진 女/婿 : 최윤지/김병국	◇입관: 10/18일 10:00 ◇발인: 10/19일 07:00 ◇장지: 영민군서호연선영(화) ◇연락처: 250-4410
장례문화의 전망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 영 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	